

地方 都市의 學校施設 複合化 관련 設問調査 研究  
 - 天安市와 牙山市를 대상으로 -

A Survey Study on Joint Venture & Use of School Facilities  
 in Provincial Cities of Korea  
 - Focused on Cheonan & Asan City -

심영섭\*  
 Shim, Young-Sub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knowledge and awareness of local peoples regarding joint venture and use of school facilities in two regional cities of Choongnam province: Cheonan and Asan. The results of the survey will be used as the planning guidelines to facilitate in seeking the appropriate plans of joint venture and use of school facilities for the respective cities. The survey was taken by 724 people of the two cities that included teachers, students and residents, and the SA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8.15% of the surveyed opposed the joint venture and use of school facilities, and the most of them expected the schools will augment their roles as the central features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joint venture and use of school facilities. The residents of the two cities showed similarities in calling for quality school facilities that are reasonable distances from their homes and hoping for outstanding cultural as well as educational school facilities with swimming pools, gyms and auditoriums.

키워드 : 초등학교, 교정, 공간배치형태

Keywords : Elementary school, School ground, Zoning patter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가까운 장소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목적기초연구(R05-2003-000-11337-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정회원, 호서대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원하는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지방 도시<sup>1)</sup>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학교시설이 열악하고 지역사회 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반면 재정자립도 또한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을 개별적으로 확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필요한 지역사회시설(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등)을 확충하면서, 학교는 교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재정지원을 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Joint Venture & Use를 통해 서로 간에 부족한 시설과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시설과 자원,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는 대신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내 학습활동만을 고려하던 과거의 학교와는 달리 지역적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충남 북부권의 대표적인 중소도시인 천안시와 아산시의 주민과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 도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연구의 1단계에 해당된다.

1단계,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 분석 및 의견 수렴

2단계, 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교육망 구성 계획 제안

3단계, 소교육망 단위의 시설배분계획 및 학교

1)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지방 도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시 규모 도시로서, 행정자치부 자료(한국도시연감, 2002)에 따르면 국내의 시규모 지방 도시는 2001년 말 기준으로 49개이다.

## 단위의 시설 복합화 건축계획 제안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주민과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일반적 인식과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7월 10일~25일, 10월 10일~27일, 12월 10일~22일의 3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표본 집단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집단간 인원이 안배되도록 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대면설문의 방법을 위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 학교 교사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 설문지 수집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총 724매<sup>2)</sup>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SAS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고 빈도 및 비율 분석과 함께 도시 및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 2.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설문조사

### 2.1 피설문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된<sup>3)</sup> 천안시 소재 7개 초등학교와 아산시 소재 8개 초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sup>4)</sup> 해당 학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피설문자의 거주지는 천안시(363명)와 아산시(361명)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

2) 천안시는 설문지 412매 배포 및 369매 회수하여 363매가 유효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아산시는 392매 배포 및 365매 회수하여 361매가 유효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3) 2003년 기준으로 두 도시의 도시지역 내 초등학교 수는 천안시가 23개교이고 아산시가 8개교이다. 설문조사에서 아산시의 8개교는 모두 포함되었으며, 천안시는 도시지역을 반경 1km 영역으로 균등 분할한 6개 지역에서 각 1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2배 규모(약 8만 명)인 쌍용동 지역에서 1개교를 추가하여 총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천안시는 쌍용초, 천안초, 봉서초, 중앙초, 부성초, 오성초, 일봉초의 7개교, 아산시는 동신초, 온천초, 중앙초, 용화초, 온양초, 천도초, 신리초, 배방초의 8개교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 학생 집단은 설문조사 내용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4학년 이상의 고학년으로 구성되었다.

삼영섭

지하고 있다. 피설문자는 각 학교의 집단별로 15명 내외가 구성되도록 하였으나 교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피설문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빈도	비율(%)		비고
도시별 집단 구성	천안	교사	102	14.09		50.14
		학생	138	19.07		
		주민	123	16.98		
	아산	교사	81	11.19		49.86
		학생	139	19.20		
		주민	141	19.47		
계			724	100.00		
성별	남자		337	46.55		
	여자		387	53.45		
	계		724	100.00		

피설문자의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53.45%로서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의 연령층은 40대가 33.33%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30대 27.65%, 50대 이상 27.27%, 20대 이하 15.15%의 비율로서, 천안의 71.54%, 아산의 85.16%가 기혼자로 구성되어 있다.

2.2 학교개방과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1)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정도

표 2. 현재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정도

		단위: 빈도(비율)						유의도
		매우 폐쇄적	폐쇄적	보통	개방적	매우 개방적	계	
천안시	교사	1 (0.98)	9 (8.82)	37 (36.27)	39 (38.24)	16 (15.69)	102 (100)	***x <sup>2</sup> *p
	주민	1 (0.82)	18 (14.75)	60 (49.18)	39 (31.97)	4 (3.28)	122 (100)	
	계	2 (0.89)	27 (12.05)	97 (43.30)	78 (34.82)	20 (8.93)	224 (100)	
아산시	교사	0 (0)	12 (14.81)	26 (32.10)	34 (41.98)	9 (11.11)	81 (100)	***p ***x <sup>2</sup> **p
	주민	1 (0.71)	26 (18.44)	81 (57.45)	31 (21.99)	2 (1.42)	141 (100)	
	계	1 (0.45)	38 (17.12)	107 (48.20)	65 (29.28)	11 (4.95)	222 (100)	
총계		3 (0.67)	65 (14.57)	204 (45.74)	143 (32.06)	31 (6.95)	446 (100)	

x<sup>2</sup>: 13.9793 \*p: 0.0074, \*\*x<sup>2</sup>: 24.6029 \*\*\*p<.0001, \*\*\*x<sup>2</sup>: 7.4600 \*\*\*p: 0.1886

교사와 주민에게 “현재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정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질문한 결과, 두 도시 모두 ‘보통’의 평가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개방적’ 이상이 천안시는 43.75% 아산시는 34.23%로서 긍정적인 평가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도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인식 차이가 없으나 집단 간에는 주민 보다 교사가 학교시설 개방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수업 이외 목적의 학교시설 활용 빈도

표 3. 수업의 목적 학교시설 활용 빈도

		단위: 빈도(비율)						유의도
		주1회	월1회	계절 1회	연1회	없음	계	
천안시	학생	61 (44.20)	29 (21.01)	7 (5.07)	7 (5.07)	34 (24.64)	138 (100)	*x <sup>2</sup> *p ***x <sup>2</sup>
	주민	27 (21.95)	25 (20.33)	14 (11.38)	16 (13.01)	41 (33.33)	123 (100)	
	계	88 (33.72)	54 (20.69)	21 (8.05)	23 (8.81)	75 (28.74)	261 (100)	
아산시	학생	90 (64.75)	26 (18.71)	4 (2.88)	13 (9.35)	6 (4.32)	139 (100)	***x <sup>2</sup> ***p **p
	주민	20 (14.29)	35 (25.00)	19 (13.57)	36 (25.71)	30 (21.43)	140 (100)	
	계	110 (39.43)	61 (21.86)	23 (8.24)	49 (17.56)	36 (12.90)	279 (100)	
총계		198 (36.67)	115 (21.30)	44 (8.15)	72 (13.33)	111 (20.56)	540 (100)	총계

x<sup>2</sup>: 19.1422 \*p: 0.0007, \*\*x<sup>2</sup>: 82.4493 \*\*\*p<.0001, \*\*\*x<sup>2</sup>: 25.4813 \*\*\*p<.0001

학생과 주민의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 개방이나 평생교육 등을 통한 학교시설 활용 빈도는 전체적으로 ‘주 1회’가 가장 많고 ‘월 1회’가 다음을 차지하여 전체의 57.97%가 월 1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집단 간에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산시의 학생과 주민이 천안시의 경우보다 학교시설 활용 빈도가 높고 두 도시 모두 학생이 주민보다 학교시설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주민의 33.33%와 아산시 주민의 21.43%는 학교시설 활용 경험이 전혀 없다.

3) 학교시설 이용의 불편사항

수업 이외 목적의 학교시설 활용 경험이 있는

학생과 주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개방을 통한 학교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질문한 결과, 두 도시가 동일하게 ‘시설종류의 빈약’-‘시설 수준의 빈약’-‘사용절차의 불편’-‘시설규격 부적합’의 순으로 불편을 지적하고 있다.

표 4. 학교시설 이용의 불편사항

단위: 빈도(비율)

	사용절차 불편	시설종류 빈약	시설수준 빈약	시설규격 부적합	계
천안시	53 (19.34)	121 (44.16)	64 (23.36)	36 (13.14)	274 (100)
아산시	25 (7.84)	175 (54.86)	101 (31.66)	18 (5.64)	319 (100)
총계	78 (13.15)	296 (49.92)	165 (27.82)	54 (9.11)	593 (100)

학교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에 대해 도시별로 집단 간에는 여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학생이 불편사항 1순위로 ‘시설종류의 빈약’을 지적하고 ‘사용절차의 불편’을 2순위로 지적한 반면, 교사와 주민은 ‘시설수준의 빈약’을 1순위로 지적하고 ‘시설종류의 빈약’을 2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 $\chi^2 : 40.4495, p < .0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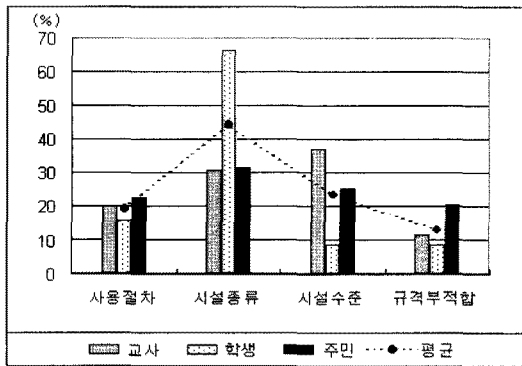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시설 이용 불편사항(천안시)

아산시는 1순위로 학생과 주민이 ‘시설종류의 빈약’을 지적하고 교사는 ‘시설수준의 빈약’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용절차의 불편’이나 ‘규격 부적합’에 대해서도 집단간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 $\chi^2 : 20.1432, p : 0.0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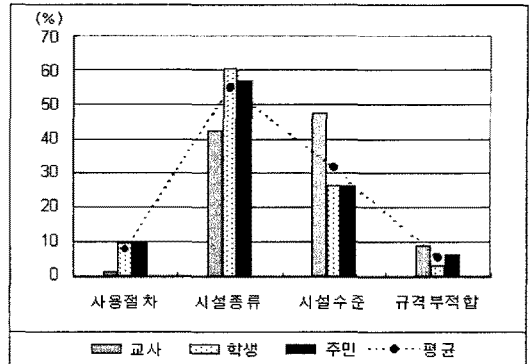


그림 2.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경험

이와 같은 집단간 인식 차이는 학교시설 복합화 공동활용이 학생 위주의 학교시설 활용에서 벗어나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구성원 모두의 활용성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과정에서 시설 수준의 향상이나 시설 종류의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집단의 성격을 고려한 시설계획 및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4)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경험

3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은 두 도시의 교사 및 주민의 21.30%만이 참여 경험이 있으며 두 도시 모두 교사보다 주민 집단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는 주민의 91.49%가 평생교육 경험이 없으며 천안시(28.57%)는 아산시(13.96%)의 경우보다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약 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chi^2 : 14.1924, p : 0.0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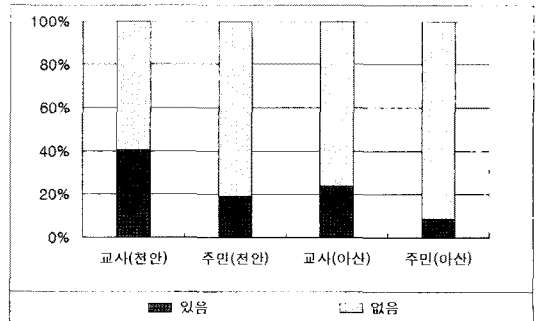


그림 3.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경험

천안시 주민의 학교시설 활용빈도가 아산시보다 낮는데 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미루어 천안시 주민은 평생교육을 통한 학교시설 활용이 아산시보다 활발한 것으로 짐작된다.

5)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요인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천안시와 아산시의 교사 및 주민의 약 70%에 달하는 대다수가 ‘시간의 부족’을 1순위로 지적하고 다음으로 ‘교육시설의 부실(16.10%)’을 지적하고 있다. ‘재정적 부담(7.26%)’과 ‘교육내용의 부실(7.03%)’은 비슷한 비율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주민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가장 낮은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점에 비추어 ‘시간의 부족’과 ‘교육시설의 부실’이 해결된다면 일부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평생교육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표 5.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빈도(비율)					유의도
		재정적 부담	시간 부족	교육시설 부실	교육내용 부실	계	
천안시	교사	5 (4.95)	78 (77.23)	13 (12.87)	5 (4.95)	101 (100.00)	***x <sup>2</sup> *p
	주민	14 (11.38)	76 (61.79)	22 (17.89)	11 (8.94)	123 (100.00)	
	계	19 (8.48)	154 (68.75)	35 (15.63)	16 (7.14)	224 (100.00)	
	총계	32 (7.26)	307 (69.61)	71 (16.10)	31 (7.03)	441 (100.00)	
아산시	교사	8 (10.13)	53 (67.09)	15 (18.99)	3 (3.80)	79 (100.00)	***x <sup>2</sup> ***p
	주민	5 (3.62)	100 (72.46)	21 (15.22)	12 (8.70)	138 (100.00)	
	계	13 (5.99)	153 (70.51)	36 (16.59)	15 (6.91)	217 (100.00)	
	총계	32 (7.26)	307 (69.61)	71 (16.10)	31 (7.03)	441 (100.00)	

\*x<sup>2</sup>: 6.7579 \*p: 0.0800, \*\*x<sup>2</sup>: 5.9269, \*\*\*p: 0.1152  
\*\*\*x<sup>2</sup>: 1.0638, \*\*\*\*p: 0.7858

6) 현재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의 역할

“현재 학교가 사회의 중심시설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과 부정이 각 26%를 차지하고 보통이 47.37%로서 중간적인 평가가 절반가량을 보이고 있다.

표 6. 현재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시설 역할

		단위: 빈도(비율)					유의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천안시	교사	0 (0)	43 (42.16)	35 (34.31)	15 (14.71)	9 (8.82)	102 (100)	***x <sup>2</sup> *p
	학생	7 (5.07)	16 (11.59)	69 (50.00)	38 (27.54)	8 (5.80)	138 (100)	
	주민	4 (3.31)	44 (36.36)	56 (46.28)	15 (12.40)	2 (1.65)	121 (100)	
	계	11 (3.05)	103 (28.53)	160 (44.32)	68 (18.84)	19 (5.26)	361 (100)	
아산시	교사	3 (3.70)	16 (19.75)	42 (51.85)	19 (23.46)	1 (1.23)	81 (100)	***x <sup>2</sup> ***p
	학생	0 (0)	18 (12.95)	72 (51.80)	46 (33.09)	3 (2.16)	139 (100)	
	주민	2 (1.42)	38 (26.95)	68 (48.23)	32 (22.70)	1 (0.71)	141 (100)	
	계	5 (1.39)	72 (19.94)	182 (50.42)	97 (26.87)	5 (1.39)	361 (100)	
총계		16 (2.22)	175 (24.24)	342 (47.37)	165 (22.85)	24 (3.32)	722 (100)	

\*x<sup>2</sup>: 46.1804 \*p<.0001, \*\*x<sup>2</sup>: 16.5194 \*\*p: 0.0355  
\*\*\*x<sup>2</sup>: 22.4203 \*\*\*\*p: 0.0002

두 도시 간의 전체적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집단별로 보면 천안시의 교사(42.16%)와 주민(39.67%)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아산시는 주민(28.37%)의 부정적인 평가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의 경우 두 도시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3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인식

1)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시설화 가능성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체의 93.95%가 보통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6.65%만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두 도시를 비교해 볼 때 아산시가 천안시보다 긍정적인 기대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에는 교사-주민-학생의 순서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세 집단 모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현재보다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이 증대하리라 예상하고 있다.5)

5) 서울시 강동구의 교사 232명과 주민 236명을 대상으로

표 7.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시설화 가능성

단위: 빈도(비율)

	단위: 빈도(비율)						유의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천안시	교사	0 (0)	8 (7.84)	26 (25.49)	56 (54.90)	12 (11.76)	102 (100)	*** $\chi^2$
	학생	5 (3.68)	11 (8.09)	48 (35.29)	59 (43.38)	13 (9.56)	136 (100)	
	주민	0 (0)	9 (7.32)	44 (35.77)	65 (52.85)	5 (4.07)	123 (100)	
	계	5 (1.39)	28 (7.76)	118 (32.69)	180 (49.96)	30 (8.31)	361 (100)	
	총계	5 (0.69)	43 (5.96)	232 (32.13)	391 (54.16)	51 (7.06)	722 (100)	
아산시	교사	0 (0)	2 (2.47)	22 (27.16)	45 (55.56)	12 (14.81)	81 (100)	*** $\chi^2$
	학생	0 (0)	11 (7.91)	44 (31.65)	81 (58.27)	3 (2.16)	139 (100)	
	주민	0 (0)	2 (1.42)	48 (34.04)	85 (60.28)	6 (4.26)	141 (100)	
	계	0 (0)	15 (4.16)	114 (31.58)	211 (58.45)	21 (5.82)	361 (100)	
	총계	0 (0)	17 (4.66)	164 (45.16)	347 (94.86)	27 (7.38)	361 (100)	

\*  $\chi^2$ : 16.8518 \* p: 0.0317, \*\*  $\chi^2$ : 23.8543 \*\* p: 0.0006  
 \*\*\*  $\chi^2$ : 13.0452 \*\*\*p: 0.0111

2)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의 복합화 공동활용에 대해 천안시의 10.19%와 아산시의 6.09%가 반대 의견을 보여 두 도시 모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체적으로는 찬성 이상이 천안시는 56.19%이고 아산시는 74.24%로서, 아산시의 주민과 교사, 학생은 천안시의 경우보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 $\chi^2$ : 31.7104,  $p < .0001$ ) 천안시는 아산시와 비교하여 학생 집단의 찬성 이상 빈도가 42.75%로 낮고 세 집단 모두 보통의 유보적인 평가가 30-40%를 차지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 선호도는 천안시가 주민(66.67%) 교사(61.76%) 학생(42.75%)의 순으로, 아산시는 주민

로 실시한 연구(심영섭,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일반 인식 설문조사 연구, 호서대학교 논문집, 제 21권, 2002)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시설화 가능성에 대해 교사의 27.12%와 주민의 10.2%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천안 아산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시 강동구의 주민들보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시설화 가능성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표 8. 학교시설 복합화 선호도

단위: 빈도(비율)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계
천안시	7 (1.93)	30 (8.26)	122 (33.61)	163 (44.90)	41 (11.29)	363 (100)
아산시	0 (0)	22 (6.09)	71 (19.67)	202 (55.96)	66 (18.28)	361 (100)
총계	7 (0.97)	52 (7.18)	193 (26.66)	365 (50.41)	107 (14.78)	724 (100)

(83.69%) 학생(71.2%) 교사(62.96%)의 순으로 찬성 이상의 의견을 보여 두 도시 모두 주민 집단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chi^2$ : 30.3535,  $p: 0.0002$ / 아산  $\chi^2$ : 19.0058,  $p: 0.0042$ )

3) 학교시설 복합화 적합 교육기관

학교시설 복합화에 적합한 교육기관으로 두 도시 모두 초등학교를 가장 크게 선호하고 다음으로 대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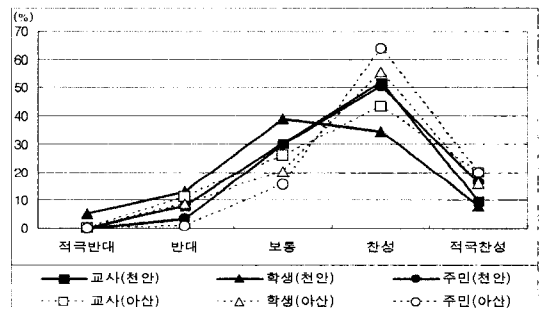


그림 4.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

표 9. 학교시설 복합화 적합 교육기관

단위: 빈도(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
천안시	143 (39.94)	59 (16.48)	33 (9.22)	123 (34.36)	358 (100)
아산시	271 (75.70)	16 (4.47)	4 (1.12)	67 (18.72)	358 (100)
총계	414 (57.82)	75 (10.47)	37 (5.17)	190 (26.54)	716 (100)

도시별로 볼 때, 아산시는 75.70%의 대다수가 초등학교를 가장 선호하는데 비해 천안시는 대학

삼영섭

교(34.63%)에 대한 선호도가 초등학교(39.94%)와 큰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chi^2: 103.4632, p<.0001$ ) 이와 같은 결과는 11개 대학이 밀집한 천안시의 도시적 특성상 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두 도시 모두 낮으나 아산시에 비해 천안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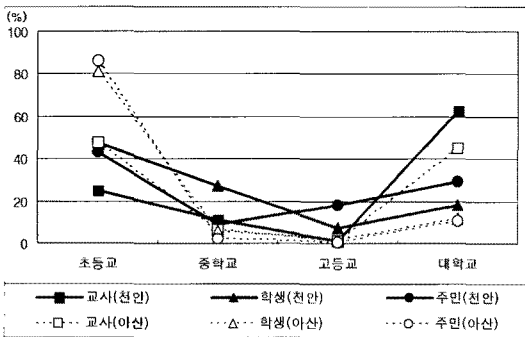


그림 5. 학교시설 복합화 적합 교육기관

집단별로는 두 도시 모두 교사 집단에서 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는 학생과 주민의 약 45%가 초등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교사는 대학교(62.63%)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 $\chi^2: 74.9970, p<.0001$ ) 아산시는 학생과 주민의 80% 이상이 초등학교를 선호하고 있으나 교사는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다. ( $\chi^2: 52.1869, p<.0001$ )

4) 학교시설 복합화시 염려사항

“학교시설 복합화시 염려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두 도시 모두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1순

표 10. 학교시설 복합화시 염려사항

	단위: 빈도(비율)					유의도
	학교수업 지장	유지관리 어려움	사고범죄 우려	주민 재정부담	계	
천 안	73 (20.39)	171 (47.77)	79 (22.07)	35 (9.78)	358 (100)	$\chi^2: 72.8307$ $p<.0001$
아 산	122 (34.46)	161 (45.48)	42 (11.86)	29 (8.19)	354 (100)	$\chi^2: 103.7792$ $p<.0001$
총 계	195 (27.39)	332 (46.63)	121 (16.99)	64 (8.99)	712 (100)	

위로 지적하고 ‘주민의 재정 부담’을 4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2순위로 ‘사고·범죄의 우려’를 지적한 반면 아산시는 ‘학교수업의 지장’을 지적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chi^2: 24.4689, p<.0001$ )

집단별로 볼 때 두 도시의 교사와 주민은 ‘유지·관리의 어려움’-‘학교수업의 지장’-‘사고·범죄의 우려’-‘주민의 재정 부담’ 순으로 염려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나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주민(천안 41.80%, 아산 50.36%)보다 교사(천안 78.79%, 아산 78.21%) 집단의 염려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은 교사 및 주민 집단과는 달리 ‘유지·관리의 어려움’보다는 ‘사고·범죄의 우려’(천안 38.69%)나 ‘학교수업의 지장’(아산 54.68%)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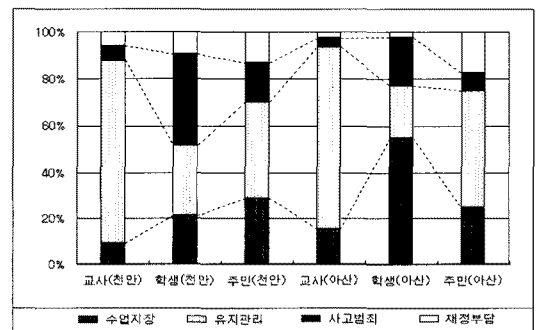


그림 6. 학교시설 복합화시 염려사항

학생들의 이와 같은 염려는 학교시설 복합화 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복합화시설 건축계획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5) 학교시설 복합화시 중요 고려사항

학교시설 복합화시 고려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좋은 시설’-‘편리한 위치’-‘좋은 프로그램’-‘편리한 절차’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천안시와 아산시 간의 인식 차이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는 ‘좋은 시설’-‘좋은 프로그램’-‘편리한 위치’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나 아산시는 ‘편리한 위치’-‘좋은 시설’-‘편리한 절차’ 순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의 중요

도를 지적하고 있다.( $x^2$ : 18.1071,  $p$ : 0.0004)

표 11. 학교시설 복합화시 중요 고려사항

단위: 빈도(비율)					
	편리한 위치	편리한 절차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계
천안시	89 (24.86)	47 (13.13)	126 (35.20)	96 (26.82)	358 (100)
아산시	114 (32.02)	72 (20.22)	111 (31.18)	59 (16.57)	356 (100)
총계	203 (28.43)	119 (16.67)	237 (33.19)	155 (21.71)	714 (100)

천안시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교사와 학생이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1,2순위로 지적한 반면 주민은 '편리한 위치'와 '좋은 시설'을 같은 비율의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x^2$ : 11.4748,  $p$ : 0.0748)

아산시의 경우 교사가 '좋은 시설(44.30%)'과 '좋은 프로그램(27.85%)'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은 '편리한 위치(41.30%)'와 '좋은 시설(44.30%)'의 순으로, 주민은 '편리한 위치(31.65%)'와 '편리한 절차(27.34%)'의 순으로 중요도를 지적하여 집단간 서로 다른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x^2$ : 39.1853,  $p < 0.0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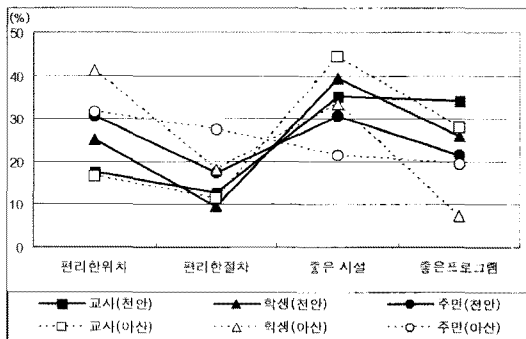


그림 7. 학교시설 복합화시 중요 고려사항

결과적으로 두 도시의 교사 집단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해 '좋은 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해 주민은 '편리한 위치'를 우선하고 있다. 주민 집단이 '시간의 부족'을 평생교육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던 앞선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면, 주민은 접근성이 좋은 편리한 위치에서 부족한 시간을 할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크게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교육희망 프로그램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교육희망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질문한 결과, 두 도시 모두 '기초·교양 분야'를 1순위로 선호하고 다음으로 '취미·기술 분야'와 '체육·건강 분야'를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다.( $x^2$ : 10.2338,  $p$ : 0.0367)

표 12. 복합화 교육희망 프로그램

단위: 빈도(비율)						
	기초 교양	취미 기술	체육 건강	여가 봉사	가족 생활	계
천안시	107 (29.64)	85 (23.55)	85 (23.55)	39 (10.80)	45 (12.47)	361 (100)
아산시	145 (40.62)	70 (19.61)	68 (19.05)	30 (8.40)	44 (12.32)	357 (100.00)
총계	252 (35.10)	155 (21.59)	153 (21.31)	69 (9.61)	89 (12.40)	718 (100)

천안시의 경우 집단간 유의할만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x^2$ : 12.2472,  $p$ : 0.1405) 아산시는 세 집단 모두 '기초·교양 분야'를 1순위로 선호하지만 2순위 프로그램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는 2순위 희망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체육·건강 분야'를 선호하고 학생은 '취미·기술 분야'를 선호한 반면 주민은 '가족·생활 분야'를 선호하고 있다.( $x^2$ : 29.1114,  $p$ : 0.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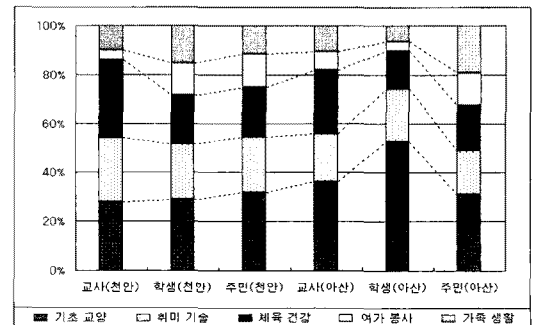


그림 8. 복합화 교육희망 프로그램



7) 학교시설 복합화 확충희망 시설

“학교시설 복합화시 확충희망 시설은 무엇입니까” 질문한 결과, 천안시는 수영장(14.59%)-체육관(13.04%)-도서실(12.66%)-공연장(11.40%)-탁아소(7.73%)-박물관(7.05%)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아산시는 수영장(19.96%)-체육관(12.87%)-컴퓨터실(8.61%)-공연장(7.85%)-박물관(7.57%)-어학실(7.57%)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결국 두 도시 모두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박물관 기능의 시설 확충을 강하게 원하는 가운데 천

안시는 도서실과 탁아소, 아산시는 컴퓨터실과 어학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도시 모두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기술실 등의 특별교실에 대한 요구는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로 비교해 볼 때, 천안시의 교사는 탁아소(16.31%)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반면 주민은 도서실(16.08%)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으며, 학생은 교사와 주민이 상대적으로 낮게 선호한 박물관(11.92%)을 2순위로 높게 희망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학생의 박물관(11.33%)에 대한 선호가 천안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순위로 높으며 컴퓨터실에 대한 요구도 3순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산시의 주민은 공연장과 탁아소를 3순위로 높게 원하고 있으나 교사는 이들 시설을 중간 이하의 순위로 원하는 대신 도서실과 강당에 대한 요구를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보이고 있다.

표 13. 학교시설 복합화시 확충희망 시설

	단위: 빈도(비율)								
	천안시				아산시				총계
	교사	학생	주민	계	교사	학생	주민	계	
박물관	9 (3.19)	46 (11.92)	18 (4.90)	73 (7.05)	9 (3.96)	47 (11.33)	24 (5.78)	80 (7.57)	153 (7.31)
공연장	28 (9.93)	42 (10.88)	48 (13.08)	118 (11.40)	11 (4.85)	36 (8.67)	36 (8.67)	83 (7.85)	201 (9.61)
과학실	1 (0.35)	9 (2.33)	4 (1.09)	14 (1.35)	3 (1.32)	4 (0.96)	3 (0.72)	10 (0.95)	24 (1.15)
미술실	6 (2.13)	12 (3.11)	13 (3.54)	31 (3.00)	4 (1.76)	11 (2.65)	6 (1.45)	21 (1.99)	52 (2.49)
음악실	10 (3.55)	10 (2.59)	13 (3.54)	33 (3.19)	6 (2.64)	5 (1.20)	4 (0.96)	15 (1.42)	48 (2.29)
도서실	34 (12.06)	38 (9.84)	59 (16.08)	131 (12.66)	23 (10.13)	4 (0.96)	32 (7.71)	59 (5.58)	190 (9.08)
기술실	4 (1.42)	10 (2.59)	3 (0.82)	17 (1.64)	3 (1.32)	8 (1.93)	5 (1.20)	16 (1.51)	33 (1.58)
컴퓨터실	11 (3.90)	36 (9.33)	23 (6.27)	70 (6.76)	14 (6.17)	44 (10.60)	33 (7.95)	91 (8.61)	161 (7.70)
체육관	36 (12.77)	42 (10.88)	57 (15.53)	135 (13.04)	43 (18.94)	42 (10.12)	51 (12.29)	136 (12.87)	271 (12.95)
수영장	39 (13.83)	62 (16.06)	50 (13.62)	151 (14.59)	24 (10.57)	113 (27.23)	74 (17.83)	211 (19.96)	362 (17.30)
강당	23 (8.16)	24 (6.22)	9 (2.45)	56 (5.41)	21 (9.25)	14 (3.37)	20 (4.82)	55 (5.20)	111 (5.31)
전시장	6 (2.13)	24 (6.22)	19 (5.18)	49 (4.73)	12 (5.29)	29 (6.99)	26 (6.27)	67 (6.34)	116 (5.54)
어학실	19 (6.74)	19 (4.92)	16 (4.36)	54 (5.22)	19 (8.37)	29 (6.99)	32 (7.71)	80 (7.57)	134 (6.41)
시청각실	10 (3.55)	8 (2.07)	5 (1.36)	23 (2.22)	18 (7.93)	24 (5.78)	33 (7.95)	75 (7.10)	98 (4.68)
탁아소	46 (16.31)	4 (1.04)	30 (8.17)	80 (7.73)	17 (7.49)	5 (1.20)	36 (8.67)	58 (5.49)	138 (6.60)
계	282 (100)	386 (100)	367 (100)	1035 (100)	227 (100)	415 (100)	415 (100)	1057 (100)	2092 (100)
유의도	$\chi^2: 121.5680 \quad p<.0001$				$\chi^2: 120.9939 \quad p<.0001$				

주) 복수 응답

3.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

천안시와 아산시의 교사 및 주민은 현재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정도에 대해 80% 이상이 ‘보통’ 이상의 개방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의 약 58%가 ‘월 1회 이상’ 수업 이외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학교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두 도시 모두 ‘시설종류의 빈약’-‘시설수준의 빈약’-‘사용절차의 불편’-‘시설규격 부적합’의 순으로 불편을 지적하는 가운데 집단간에 일부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주민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경험은 천안시(28.57%)가 아산시(13.96%)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도시 교사와 주민의 약 70%에 달하는 대다수가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시간의 부족’을 1순위로 지적하고 다음으로 ‘교육시설의 부실’을 지적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학교의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에 대해 두 도시 모두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비율로

서 중간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93.95%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적합한 교육기관으로 두 도시 모두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대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시 염려사항에 대해 두 도시 모두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1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염려사항 2순위로 천안시는 '사고·범죄의 우려'를 지적하고 아산시는 '학교수업의 지장'을 지적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도시의 집단간에도 일부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시 중요 고려사항에 대해 두 도시의 주민 집단은 '편리한 위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천안시가 '좋은 시설'-'좋은 프로그램'-'편리한 위치'순으로 지적한 반면 아산시는 '편리한 위치'-'좋은 시설'-'편리한 절차'의 순으로 지적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교육희망 프로그램은 두 도시 모두 '기초·교양 분야'에 이어 '취미·기술 분야'와 '체육·건강 분야'를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복합화시 확충희망 시설은 도시 또는 집단별로 부분적인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박물관 기능의 시설 확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 4. 결론

천안시와 아산시의 주민과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의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미래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일반적 인식과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두 도시 피설문자의 약 8%만이 학교시설 복합화에 반대하고 대다수가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이 증대하리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두 도

시의 주민과 교사, 학생은 현재의 학교시설 개방이나 평생교육,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과 잠재력 등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복합화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계획 및 운영과 관련되는 복합화시 염려사항이나 고려사항 등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도시 또는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인식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

앞으로 두 도시의 학교시설 복합화는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박물관 등의 시설 확충과 기초·교양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되,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에서는 각론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지역 또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서울, 2002
2. 한국도시연감, 행정자치부, 2002
3.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2002
4. 한국의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2002
5. 권대봉, 평생학습사회의교육. 서울:학지사, 1996
6. 권이중 외,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부, 1995
7. 기영화 외,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서울: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6
8. Olsen, Edward. 김은우 역, 학교와지역사회. 서울:현대사상사, 1973
9. 허준양, 초등학교 교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교육행정가와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0. 심영섭, 서울시 초등학교의 지역사회학교화를 위한 교육망 모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11호 통권 121호, 1998.11
11. 심영섭,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일반 인식 설문조사 연구, 호서대학교 논문집, 제 21권, 2002